

- 박제가는 최고운과 조중봉을 존경했다.(외국의 문화를 들여와 개혁을 시도함)
- 중국을 본받고자 하였다.

수레

- **타는 수레는 태평거**라고 한다. 장막은 주로 푸른 베를 사용하며 비단을 쓰기도 한다. 노새나 나귀 한마리를 사용한다. 수레 하나에 다섯명을 나를 수 있다.
- **짐을 싣는 수레를 대거**라 한다. 바퀴 높이는 태평거와 같지만 두께가 더 두껍다. 주로 말 대 여섯 필을 사용한다. 말구종(말 모는 사람)은 채찍질하며 늦장부리는 말을 때린다. 말에 작은 **방울**을 달아 밤길을 조심해 간다. 보통 이런 방울을 다는 자들은 산서지방 장사꾼 들로 관문을 이용한다.
- **외바퀴 수레**는 작은 장사꾼이 많이 사용한다. **바탕**을 사용해 바퀴에 진흙이 튀어 오르는 것을 막는다.
- 수레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수레가 필요하지 않냐 묻고 값을 치르면 태워준다. 보통 수레와 말의 외양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보통 50~60전으로 두사람이 타면 1/3의 값을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30~40문이다.
- 수레는 마치 한채의 움직이는 집 같다.
- 우리나라 자용거 등은 지나치게 무겁다. 중국 수레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 해마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수레 몇채씩 사다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 백성들은 운반할 힘이 없어 지역간에 교류가 적다. Ex) 영동에선 풀이 나지만 소금이 없고 관서에선 철이 생산되지만 밀감 유자가 없다.

배

- **판자**가 있고 빗물이나 말 오줌이 세어 들어오지 못한다.
- 우리나라 배는 빗물도 잘 못막는다. 결국 물을 계속 퍼내야 하고 탄사람도 정강이까지 물이 차서 옷을 건어야 한다.
- 중국 배는 탈 때 쓰는 **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리가 없어 배타는 말이 다리를 다친다.
- 다른건 몰라도 다리와 판자는 꼭 설치해야 한다.

성

- 성은 벽돌로 쌓았고 **벽돌은 화**로 붙였다.
- 성 위에는 작은 담을 앞 뒤로 쌓았다. 안쪽담은 빗물이 통하도록 하고 바깥쪽 담은 총과 활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냈다.
- "돌 한 개의 견고함은 한 개의 벽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 개를 쌓은 돌의 견고함은 여러 개의 벽돌에 미치지 못한다."
- 돌은 사람이 다듬어야 해서 힘이 들지만 벽돌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모나고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
- 백성의 집은 대개 초가지붕인데 십년동안 보수한다면 그 비용이 기와보다 많이 든다.
- **수레가 있어야 벽돌의 이로움이 생긴다.**
- 성 밑에는 **못과 해자**가 있어야 한다.
- "동국의 성은 모두 그림 가운데 서있는 성이다" 이 말은 겉은 성이지만 안은 성이 아니란 의미다.(모양만 성이다)
- 성에는 **웅성**이 있어야 한다.

벽돌

- 벽돌 굽는 가마는 마치 **종을 얹어 놓은 것** 같고 안쪽 천정은 나선형이며 굴뚝은 꼭지가 나와 있다.
- 중국은 온 나라가 벽돌로 만들어져 백성이 수화의 걱정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 쌓는데와 덮는 데 사용되는 물건 세가지 **방석 벽돌 석란**
- 바르는 물건 세가지 **석회 모래 기왓가루**를 **삼화회**라 하며 만약 **모래와 기왓가루 중 한가지를 빼면 회화**라 한다.
- 모래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 상품 **땅**이 중품 **호수**에서 나는 것이 하품이다.
- 모래는 또 **붉은 것**이 상품 **검은 것**이 그 다음 **흰 것**이 가장 나쁘다.
- 모래는 문질러서 **사각 사각** 소리가 나거나 자세히 보아 **모가 나** 있으면 순수한 모래이고 쏘아져도 **먼지**가 나지 않아야 순수한 모래이다.
- 벽돌은 기와 부스러기나 벽돌 흙을 체로 가려서 섞어서 사용하며 기와 부스러기가 좀 더 좋다.

- 서양에서 파조랄라란 물건을 구하면 토석 공사가 크게 이로우며 주로 유황 혹은 온천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

기와

- 기와는 직경이 원의 4분의 1이다. 서로 합치면 둥글다.
- 수키와 없이 서로 원앙이 되며 위 아래로 흠으로 채우고 틈이 없어 돌처럼 된다. 원앙이 되도록 한 곳은 물결무늬처럼 되었다.
- 우리 기와는 크기만 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다.

자기

- 중국 자기는 모두 정하며 다 쓰러져가는 집에도 급벽으로 채색한 향아리 술잔등이 있다.
- 이는 사치가 아니며 토공이라면 마땅히 이리 해야한다.
- 우리 자기는 매우 거칠다.
- 그릇이 부서지는 것은 그릇의 투박함 때문이 아닌 다루는 사람 때문이다.

대자리

-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 3가지 수레 벽돌 대자리
- 수레로 물건을 옮기고 벽돌로 쌓고 대자리로 덮으면 집의 절반은 지어진거다.
- 우리나라 대자리는 좁고 넓지 못하며 큰 것은 고르지 못하다.
- 중국 것은 구들 넓이를 치수로 했다.
- 대자리를 장대에 매달아 햇빛을 가리기도 함

궁실

- 일자로 되어있고 꺾이지 않았다.
- 한채의 길이는 네다섯 칸이고 넓이는 5량인데 우리나라 칸수에 1/3을 더한정도로 크다.
- 남쪽으로 구들이 있고 구들 밑에는 벽돌을 깔았다.

창호

- 종이를 **바깥**에 발랐다.
- 창은 안에서 밀치는게 많은데 종이를 밖에 발라 종이가 손에 닿지 않아 종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 문 안쪽에 방울을 달아 조금만 열어도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도로

- 중국 큰 길은 우리나라 거리보다 1/3을 더한 크기만큼 크다.
- 문앞에 **물독**을 두고 자주 물을 뿌려 먼지와 화재를 막는다.
- 바닥은 돌을 깔았고 길 양쪽에 나무를 심었다.
- 길 양쪽엔 **도랑**을 파놓았다.
- 임금이 다니는 길을 **황토**로 쌓았다. 두께는 한자가량 되고 폭은 보통길과 같다.
- 십보 사이에 흙 두어말을 덮어두고 보충할 흙으로 사용한다.
- 우리나라 도로는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넘어지기 쉽다.
- 우리나라 도로는 가가(시장)가 들어서면 길이 좁아 말탄 사람끼리 서로 지나갈 수 없다.

교량

- 다리 문은 모두 **무지개 모양**이며 나무를 걸쳐서 기둥으로 썼다.
- 다리엔 난간이 있고 **붉은색**으로 칠했다.
- 우리나라 다리는 돌다리로 비가오면 무너지며 솔잎과 흙을 덮는데 말 다리가 자주 빠진다.
- 다리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 백성들을 물에 들어가게 해 붙잡고 서게 하는데 이러면 저 다리는 무엇에 쓸 것인가?

축목

- "중국 말이 먹는 곡식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먹는 것의 반은 된다"는 말은 곡식이 풍부해서 말을 먹이기 충분하다는 말이다.
- 중국에선 목축이 나라의 큰 정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 이를 익히려 하지 않는다.

소

- 보통 소는 코를 뚫지 않지만 **남방의 물소**는 사납기에 코를 뚫는다.
- 우리나라 소는 **콧대**가 낮아 중국소와 구별이 쉽다.
- 중국은 소 도살을 금한다. 대신 돼지 양을 주로 먹는다.
- 우리나라는 매일 소가 500마리씩 죽어나간다.(식재료)
- 돼지와 양을 기르고 식성을 그에 맞춰야 한다.
- 율곡은 "그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느냐"며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말

- 중국 사람들은 **말구종**(말을 모는 시종) 없이 말을 탄다.
- 말을 타며 마구종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 자주 내렸다 타서 말을 쉬게하고 항상 빗질하여 냄새나지 않게한다.
- 말구종이 있으면 말은 사람 걸음에 맞춰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말의 걸음을 해친다 하여 **말의 교미**를 금한다. 이는 매년 수천마리의 말을 잃는 짓이다.
- 문신이 타던 말이 전시에 전사가 탈 말인데 조용하게 길들여선 안된다.
- 중국에선 말에게 죽 대신 **다른 곡식을 소금에 볶아서** 냉수와 마시게 한다.
- 주례에 말은 **수컷이 암컷의 4분의 1**이다 했다.
- 월령에는 3월이 되면 수천마리 말을 목장에 놓아 교미시킨다 했다.

나귀

- **중국에서 나귀는 천한 짐승**이다.
- 중국에선 사치를 멀리하는 **선비**들이 사치스런 말 대신 나귀를 탔다고 한다.
- 우리나라는 도리어 나귀가 귀하다.
- **이는 나귀를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귀를 이용해 물 길기 멧돌 굴리기 밭갈기 등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 나귀로 멧돌을 갈 때 눈을 가려 같은 곳을 빙빙돈단 사실을 숨긴다.

안장

- 중국 안장은 가볍고 편하다.
- 우리나라는 안장 개량이 시급한데 무게는 사람보다 무겁고 재갈 언치 등의 기구가 거칠고 딱딱해 말의 피부를 긁게한다.
- 안장을 가족으로 덮는 것을 **안갑**이라 하는데 안갑 없이 누구도 말을 타지 않는다. 이는 가족을 버리는 짓이다. 원래 비오는 날 유지가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하려던 것이 **유지 대응으로 사용**중이다.
- 중국은 **행구(디딤발)**를 **앞쪽**에 놓는데 우리는 뒤쪽에 놓는다. 말이 앞쪽 힘이 더 강하니 앞에 놓아야 한다.

구유

- **위는 넓고 밑은 좁다. 긴 판자** 셋을 합치고 양쪽 모퉁이를 막아서 만드니 우리나라처럼 **통나무**를 파낼 필요가 없다.
- 가게 앞엔 구유를 벌여 놓고 짚을 넣어 여행자들이 말을 먹이게 놓았다. **시간**에 따라 값을 받는다.

시장

- 중국은 시장이 융성하다.
- 옛 성왕은 화폐를 만들어 쓸모없는 것(화폐)가 쓸모있는 것(식료품)을 돕게 만들었다.
- 우리나라는 물자 등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가옥 비단 등을 사치가 심하다고 흥본다.
- 사실 **중국은 사치하다 망했지만 우리는 검소하여 쇠퇴중**이다. 우리나라는 금 은으로 떡을 살 수 없는데 이는 검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 이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이용법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궁핍해진다.
- 비단을 안입으니 비단짜는 사람이 없고 그릇이 비뚤어지든 관심 없으니 도공이 없으며 농사 질줄 모르니 흉년이 들고 장사할줄 모르니 이가 박하다.
- 중국은 시골길도 **가게**로 가득차지만 우리나라는 수도에 일리도 되지 않는다.

장사

-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면 장사한다.**
- 지체높은 사람이 가게에 출입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은 비웃음 당한다.
- 사대부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놀고먹는다.
- 이들은 **요행**을 바라며 청탁하는 버릇이 생기니 장사치만 못하다.

은

- 우리나라는 매년 은으로 중국에서 약재 등을 사오는데 **반나절이면 소화되는 약재를 영원할 은과 바꾸니** 은이 나날이 귀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진흙소를 바다에 빠뜨리는 격이다.

돈

- 중국 건륭 시대에 만든 돈은 윤기가 있고 크기가 일정하다.
- 우리나라 돈은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주석이 섞여 거칠고 약하다

쇠

- 쇠는 **석탄**으로 단조해 화력이 강하여 견고하고 날카로움이 우리나라의 배이다.
- 중국것을 들여와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단련하지 못한다.(석탄을 안쓰므로)

재목

- 중국에 나무는 귀하나 재목이 많다.
-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으나 재목이 귀하다.
- 중국은 장백산에서 재목을 잘라다 **배**로 옮겨온다.
- 우리나라는 서울 백리 밖에 재목이 한가득이지만 **기구**고 불편해 옮기질 못해 재목이 귀하다.

여자의 의복

- 답없음

한어

- 한어는 **문자의 근본**이다.
- 중국은 **말로 인해 글자가 나왔고** 글자를 찾아서 말을 풀이하지 아니한다.

통역

- **청나라가 일어난 이래** 우리나라 사대부는 중국어 사용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 행사 문서 언어 등을 주고받는데 통역을 사용한다.
- 그동안은 문제 없었지만 앞으로 큰일이 닥쳐도 통역관 얼굴이나 쳐다볼 것인가?
- 사대부는 한어 뿐 아니라 **만주 몽고 일본어 모두 배워야 한다.**

약

- 우리나라 의술은 믿기 어렵다.

- 무역해 오는 약도 진품인지 의심스럽다.
- 일본은 외국 약제를 구매할 때 의술에 조예가 깊은 자에게 심사를 맡긴다.

간장

- 더러워서 입에 못대는 것이 간장이다.
- 메주 만들 시기가 되면 여러 지방에서 콩을 모아 찌는데 주는 사람도 가려주지 않으며 받는 사람도 씻지 않으니 모래와 벌레가 섞여있다.
- 또 삶은 콩을 쏟고 맨발로 밟는다. 요즘도 된장 속에서 빠진 발톱과 머리카락이 발견된다.
- 나라에서 장 만드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인장

- 중국은 인장을 찍을 때 주사를 이용해 깨끗해서 좋다.
- 우리나라는 주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털을 섞어서 써서 글자가 잘 안보인다.
- 우리 인장은 너무 커서 옮길 때 말 한필이 필요할 지경이다.
- 중국 건 인장이 극히 작고 관직에 품계에 따라 손잡이에 사자 용 거북등의 모양을 만들었으며 끈으로 차게 하였다.

담요

- 전립은 견고하고 고우나 털요는 영성하고 고르지 못하다.
- 털요는 먼지투성이에 냄새나서 사용할 수 없다.

저보

- 중국 저보는 모두 인편이다.(인쇄함)
- 우리나라도 옛날엔 인출하도록 했다.
- 인출하면 관청 서리의 수효가 수십명은 줄며 종이도 서너배 줄일 수 있다.

종이

- "고려 종이는 그림 그리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돈같이 두꺼운 것이 그래도 나운데 겨우 작은 해자를 쓸 만할 뿐이다." 이때 돈같이 두꺼운 것은 자문을 쓰는 종이다.
- 우리나라 종이는 일정한 치수가 없다.
- 중국 종이는 치수가 다 일정하다.

활

- 중국 활은 거칠고 커서 사정거리도 60보 정도밖에 안된다.
- 그러나 나무로 건조되어 건조할 때나 습할때나 차이가 없다.
- 우리 활은 200보 까지도 간다.
- 그러나 불에 잘못 쪼면 고장나고 비가 오면 쓸수가 없다.

총과 화살

- 총은 우리나라것과 흡사하고 화살은 나선형이다.

자

- 우리나라 포백에 사용하는 자는 중국의 큰 자와 흡사해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 작은 자는 중국자가 사퓌정도 작다.

문방구

- 우리 붓은 안팎이 가지런해 한번 닳아지면 그만이다.
- 중국것은 안쪽 털이 점점 오그라들면서 오래 쓸수록 끝이 날카롭다.
- 우리 먹은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 없어지는데 중국것은 오래될수록 값지다.
- 우리 책은 너무 바짝 당겨 엮어서 자주 끊어지는데 중국것은 쌍가닥으로 엮어서 여유가 있다.

9

고동서화

- 용봉사 근처 시장엔 술 고옥 서화 등 기교한 것이 넘쳐난다.
- 어떤 이는 부유한들 백성 생활에 보탬이 없으니 불태워 버려도 손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그럼 푸른 산과 하늘은 반드시 먹고 입는 것인가?
- 벌래도 꽃에서 자란 벌래는 아름답고 더러운 곳에서 자란 건 징그러우니 사람도 같다.
- 천하의 보배도 우리나라에 오면 천해진다. 중국에서 받는 값에 반값이다. 사대부가 옛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거름

- 중국은 거름을 금같이 아낀다. 말이 지나가면 말똥을 줍는다.
- 똥을 물에 타서 바가지로 퍼서 쓴다. 그 효력을 고르게하기 위함이다.

- 우리나라는 마른 똥을 그대로 쓰므로 효력이 흩어진다.
- 재는 거름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버린다.

뽕나무와 과실

- 뽕나무는 어릴 때 자라는 것이 더디어서 가꾸기 어렵다.
- 늙어선 잎이 적고 오디만 많다.
- 첫해에 줄기를 태우고 2년째에 가지를 베면 무성히 자라 말 안장높이만큼 자란다.
- 배는 무와 함께 저장하면 썩지 않는다.

과거

- 과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 문장으로서 사람을 뽑아 그사람의 문장을 이용하는 것은 활쏘기로 사람을 뽑아 활숨씨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 미처 다 등용하지도 못하는데 합격자가 무더기로 나온다. 국가 관직의 10배나 되는 합격자가 나온다.
- 제때 등용되는 것 역시 어렵고 임용은 과거를 주관하는 자의 농간에 달렸지 선비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
- 예전 과거는 인재를 뽑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 현 과거 시험장엔 잡상인 시종 강도 너나할것없이 들어간다.
- 천하의 길을 다 막아놓고 문이 하나 뿐이라면 공자도 이 문을 지나야 나올 수 있다.
- 과거는 중국제도의 ① 문체 ② 시험관의 문제 ③ 과장을 잠그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중국은 글로서 선비를 뽑는다.
- 중국은 한달 후에 방을 걸며 평가한 끝부분에 누가 평가했는지와 누가 점수를 매겼는지 기록해 합격한 이유를 환히 알게 했다.
- 중국은 방을 걸어 잠그고 한칸 방과 음식 요강등을 내주어 시험을 보게 했다.
- 참된 선비는 과거를 비루하게 여겨 치르지 않는다.
- 시험은 불시에 해야 한다.

북학변

- 중국에서 만난 사람은 몇사람일 뿐 도학을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는 내가 중국 서적을 다 읽지 못하고 중국을 두루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중국 갔다온 이야기를 청해 들려주니 오랑캐를 칭송한다고 이상한 얼굴로 지껄인다.
-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믿는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 라는 한 글자로 중국 천하를 뭉개버린다.
- 중국 욕하는 역관의 말을 친한 내 말보다 더 믿는다.
- 우리나라 시로서 송, 금, 원, 명의 체를 공부한 자가 상급 / 당의 체를 공부한 자가 그 다음이고 두시체를 공부한자가 최하이다.
- 글씨 또한 그렇다. 진나라 체를 배운 자가 가장 못나고 당, 송 이후의 필체를 배운 자가 조금 아름다우며 오늘날 중국 글씨 체를 익힌자가 가장 낫다.

관론

- 관직 청탁은 나라의 본의가 아니며 문벌이 성립된 이후부터일 것이다.

녹봉제도

- 우리나라 벼슬은 녹봉이 작아 큰벼슬 작은벼슬 관계없이 권세로서 먹을것을 만든다.
- 노비를 밥주지 않고 일시키면 누가 도둑질하지 않겠는가?
- 작은 관리라도 뇌물 때문에 부유해진다.
- 중국은 구품직에도 들지 못하는 하급관리 녹봉이 우리나라 대신보다 많다.

군사론

- 수레 벽돌 기에 목축 은 군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된다.
- 우리나라 군사 제도는 당나라 부병 제도와 같다.
- 남의 칼로는 자를 수 있고 남의 갑옷은 찢리지 않는데 우리건 아니다. 이는 쇠를 단련하는데 잘못이 있다.
- 담벼락이 완전하지 못함은 벽돌이 없기 때문이며 비올 때 활을 못쏘는 것도 활이 잘못된 것이다.
- 지금 목사나 수령은 자기 고을의 장정 수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토호 세력이 두려워 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 수레와 벽돌을 사용하고 토착 재벌을 형성하며 공업 기술을 감독해야 한다. 병정 수효를 감축하여 급료를 주며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군에 자원할 자가 생길 것이다.

장례론

- 우리나라 학문에 불교는 있어도 도교는 없다.
- 풍수설에 깊게 빠져있다.
- 학식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풍수를 다른 문서를 불지르고 풍수 노릇을 금하여 백성에게 길흉 화목이 장사(좋은 땅에 조상을 모심)와는 관계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 나라를 세울 때 지리를 설퍼는건 지형을 살피는 것이지 풍수설과 관련 없다.

농사법에서 나라에서 100묘의 땅을 주었는데 이 자가 부모와 처자식을 데리고 있어서 ()다.

>
답 : 최고의 농사는 아홉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중이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
> 구멍이 많다. 어쩔다 여러가지 보기

답 : 일정한 치수가 없다.

자기가 자주 깨지는 이유

> 다루기를 x같이 다뤄서 그릇이 두꺼워도 잘 깨진다.
(애초에 기술자도 자라져서 울퉁불퉁한 자기를 밖에 없고 그냥 씀)

거름에 대한 설명

> 상양때 거름을 버리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
중국은 더러운 것을 길에 버리는 자를 벌했다.
우리 나라는 거름의 중요성도 모르고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한다.
기억 안나는 보기

아마 답없음

어제 급하게 신청해서 밤에 ebook 사서 열어보려했는데 40점으로 실패함

책 내용이

중국에서 보고 온 수십가지 항목들이랑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 바꿔야 할 것을 왕한테 보내는 내용인데 항목들이랑 뒤에랑 열주 겹쳐서 하루면 공부해서 뚫을만 한 듯

여기서 10가지 뽑아 나옴
그런데 실제 있는 지문에서 보기가 그대로 나오고 한 항목 글에서 있는 내용을 잘라서 나오는거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에는

답 없음 이 정배 같고

아니면 답 없음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나는 내용이 답인듯

2회차에 통과하러감

여자의복

> 중국의 남자는 오랑캐 여자는 옛날
미혼인 여자를 이마 한가운데를 세로로 가른 흔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의복 여자는 몽고의 제도를 따른다.
남자 아이는 한쪽으로 말지 못하게 하고 양쪽으로 묶었다.

답 : 답 없음

울곡이 소고기를 먹지않은 이유

중국의 학자들이 먹지 않아서
소뿔이 힘이 없어서 먹으면 나도 쇠약해질까봐
소고기를 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는 잘 기억 안남

답 : 아마도 소가 아닌 다른것으로 이해해서 (원문에는 소의 힘을
이용한 곡식을 먹으면서 소고기를 또 먹는다면 이게 옳은 일인가?
라고 함)

곡식이름에 대해 필자가 제기한 문제

답 : 곡식이름이 방언으로 되어있어 들어도 알지 못한다. 학자들
불러 하나로 통합해야한다.

장례론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 : 예기에서는 () 했다.

> 자침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은 양식이 없어도 천 리를 다닐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은 무덤을 파보지도 않았다.
옛날에는 무덤을 고치지도 않았다.
또 다른 지문

답 : 옛날에는 무덤을 고치지도 않았다.

보기가 모두 실제로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침의 경우 연관이
없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은 파보지 않았을뿐 파보면 근심걱정
거리가 반드시 나올거라는 지문임.

중국 기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중국은 원을 4등분한 모양의 기와
두 개를 회로 붙이면 단단해서 새나 쥐가 지붕을 뚫을 수 없다.
여러개를 붙여 모양을 낼 수 도 있다.
담에는 통풍도 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도 있다.

답 : 답 없음

농사법에서 나라에서 100묘의 땅을 주었는데 이 자가 부모와
처자식을 데리고 있어서 ()다.

6. 박제가가 수레를 도입하자고 한 이유로 틀린 것은
수레 하나로 말 5~6필이 나르는 짐을 실을 수 있다
여인의 가마에 ?가 없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답: 답없음

7. 자기가 잘 부러지는 이유에 대해 저자의 의견

답: 자기를 험하게 다루서

나머지 보기: 울퉁불퉁해서

그릇이 얇아서 (확실x)

8. 여자 복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혼의 여자는 가로로 머리를 가른 흔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머리뿔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오랑캐의 풍
습이기 때문

중국의 남자 복식은 오랑캐 것이지만 여자 복식은 옛것
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자 복식은 옛것을 유지하지만 여자 복식
은 몽고의 것을 쓰고 있다

답: 답없음

1. 중국의 병기가 우리나라의 것보다 단단한 이유
답: 석탄으로 쇠를 가공했기 때문

나머지 보기는 다 처음보는 내용

2. 구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

통나무로 만들었다

가게 앞에 구유를 놓아 여행자가 말에게 먹일 수 있게
했다

먹는 시간에 따라 값을 받았다

답: 확실하진 않은데 답없음 체크

3. 병오년에 올리는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임금이
말하시길 ()' 괄호 안의 내용은?

답: 다른 출판사 책으로 봐서 모르겠음 이건 본인 책으
로 확인해보고 들어가세요

네의 기록을 알았하다.

4. 북학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기둥에 자주색 천을 둘렀는데 당나라의 풍습이었다

바지의 통이 넓은 이유는 양반이...

나머지 두개 기억 안 남

5. 박제가는 과거를 위한 글쓰기를 따로 배우지 않았
다. 과거를 준비하며 친구에게 "나의 글이 용두사
미가 될까 두렵다" 고 하자 그 친구의 대답은?

답: 네 글에는 원래 꼬리가 없다. 누가 네 글의 꼬리를
판별할 수 있겠는가?

